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1호 【루계 제2771호】

주체112(2023)년 10월 7일 토요일 음력 8월 23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위대한 김정은시대 축시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연변지구협회 부회장 최명진

나의 고향은 중국 동북지방의 연길이다.

일찌기 항일빨찌산의 《연길폭탄》으로 유명한 내 고향은 산도 들도 그대로 항일의 옛 전구들이며 어디를 가나 영용한 **김일성**장군님빨찌산의 성스러운 발자취가 뚜렷이 새겨져있다.

어려서부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일제를 쳐부시던 항일빨찌산의 신비스러운 축지법이야기를 옛말처럼 들으며 자란 나에게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몰라보게 변모되는 내 조국의 기적적인 소식들이 특별한 감동과 격정속에 안겨온다.

전설처럼 들려오는 조국소식, 그것은 절세의 위인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신 복받은 우리 인민만이 구가할수 있는 희세의 위인찬가이고 부흥강국시간표를 앞당기며 노도처 전진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축시법신화이다.

천지개벽의 축시법—문명의 상상봉

빨찌산 김대장께서는 한걸음에 천리를 주름잡는 신묘한 힘과 재주를 지니시고 승천입지, 신출귀몰하면서 왜놈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셨다.

김대장유격대는 모두 날개가 돋치였는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훨훨 날아다니며 큰 부대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어졌다가도 금시 나타나면서 왜놈들을 정신차릴새없이 족쳐댔다.

…

동요시절의 여름밤 화토불가에 모여앉아 마을로인들에게서 황홀하게 듣군 하던 항일전의 축지법전설.

어이하여 그 시절의 알싸한 화토불내가 아득한 세월을 넘어 이 중로배의 폐부에 다시금 찾아들며 가슴울렁이게 하는것인가. 오늘도 환희롭게 이어지는 빨찌산전설이 나로 하여금 축지법이야기에 흠뻑 취해 밤새는줄 모르던 유년기의 그 이름 못할 신비경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여주는것이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쳐가시는 무상한 천지개벽의 시대가 곧 오늘도 이어지는 빨찌산전설이라고 피력하게 된다.

접하게 되는 조국소식들마다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아닐수 없다.

평양의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 주택구가 세계의 각광을 모은것이 지난해 4월이였다. 그런데 반년후에는 련포온실농장이, 그로부터 또 반년후인 올해 4월에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련이어 준공되여 만인의 선망과 경탄을 자아내였다.

아아한 80층의 《보석탑》도 현란하고 신선들의 금루옥궐같은 경루동의 호화스러움도 놀라웁다.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온실농장의 규모와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흔아홉가지 모양의 농장원살림집들도 입을 다물수 없게 하고 송화거리의 3배에 달한다는 넓은 부지에 솟아난 화성땅의 《미남자》들도 대번에 반할 지경이다.

허나 더욱 경이적인것이 있다. 창조와 건설의 속도이다. 지경박과는 전혀 다른 조선의 시간이다.

언제인가 인터네트에서 보니 유럽의 어느한 교회건설은 20세기초엽에 시작되여 21세기에도 계속되고있었다. 많은 나라들에서는 웬만한 거리 하나를 일떠세우는데 보통 5～10년을 허비하군 한다.

그런 계산법대로라면 최근년간 조국이 펼쳐온 변혁의 설계도는 적어도 옹근 한세기의것이였다고 본다. 가중되는 제재압박과 거듭되는 자연재해에 건국이래의 대동란. 이런 악조건속에서 수도에서만도 《신평양》을 일떠세우는것과 맞먹는 상상초월의 일판을 벌려놓았으니 《상식의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백년은 걸려야 할 대사인것이다. 조국은 그 한세기를 단 몇년으로 확 줄여버렸다.

많은이들이 희한해하다 못해 어리둥절해진다. 조국을 드문히 다녀본 이 사람에게도 기이하다. 시간을 주름잡는다는 축시법이 이런것이 아닐가.

자본가들도 부러워할 호화주택동네가 순간에 일떠서니 석삼년을 일순으로 줄은하과학자거리…

평양뿐이 아니였다. 그 3년간에 마식령스키장과 연풍과학자휴양소,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원산육아원, 애육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와 원산군민발전소,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의 선경마을을 비롯하여 조국의 방방곡곡에 얼마나 훌륭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많이 일떠섰던가.

아, 삼년간에 천지개벽이라니,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은 옛말이 되여버렸구나 하는 탄복속에 저도 모르게 한달음에 일행천리하던 항일빨찌산의 축지법전설이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국방문은 충격의 련속이다. 다음해에 또 조국에 가보니 사회주의만복의 절정으로 웅장화려하게 솟아오른 려명거리가 눈뿌리를 뽑고 류경안과종합병원,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새 의료시설들, 평양가방공장, 룡악산비누공장을 비롯한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도 조국의 눈부신 발전속도를 과시하고있었다.

이제는 삼년도 아닌 1년만의 천지개벽이였다.

하다면 갈수록 억세인 힘으로 미래를 당겨오고있는 내 조국의 1년은 과연 얼마만한 세월을 응축한것인가. 10년? 20년?

분명한것은 시계의 시침을 분침으로, 분침을 초침으로 바꾸어 세월을 주름잡고있다는것이다. 하여 하루에 열흘백날을 앞당기는 축시법의 기적들이 날마다 탄생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의 빨찌산전설, 천변만화의 축시법전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항일빨찌산이 신축자재하고 변화무쌍한 축지법으로 조국해방의 새날을 안아왔다면 공화국은 조석으로 강산이 변하는 천지개벽의 축시법으로 문명개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고있다.

백두산발을 주름잡던 항일빨찌산의 축지법전설이 오늘은 문명의 상상봉에로 나래치는 **김정은**조선의 축시법전설로 이어지고있는것이다.

단번도약의 축시법—행성의 초강국

항일대전의 축지법전설이 《일속》으로 《창해》를 이긴 만고의 빨찌산신화였다면 **김정은**시대의 축시법전설은 단번도약으로 세상을 바꾼 미증유의 강국신화이다.

강국, 우리 민족이 얼마나 바라고 바라온 꿈이였던가. 내 나라가 왜놈이나 양놈이 넘보지 못하게 강했다면 나의 할아버지세대가 선조의 뼈가 묻힌 조국땅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느는 가슴아픈 일도 없었을것이다.

반만년민족사가 그리도 간절히 숙원해온 강국의 리상이 오늘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아래 더없이 후련하고 장쾌하게 이루어지고있다.

그에 대해 먼저 최강의 힘을 최단기간에 비축한 **김정은**조선의 병기신화를 놓고 이야기해볼가 한다.

솔직히 지난 시기 나는 TV에서 강대국이라 일컫는 나라들의 으리으리한 무기들을 볼 때면 몹시 부러우면서도 크지 않은 우리 나라가 그런 무기를 못가진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체념하군 하였다.

그런데 이제 더는 그런 부럼도 위안도 필요없게 되였다.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위력한 무기가 모두 우리 조국에 있다.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싸일, 잠수함발사탄도미싸일, 극초음속미싸일, 핵잠수함 같은 최강의 병기들이 다 조선의것이 되였다. 거기에 더해 세상에 없는 600㎜초대형방사포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괴물》미싸일 등 조선만의 절대병기들까지 가지고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의 위용을 떨치고있으니 대포를 가진 침략자와 화승총으로 맞서야 했던 민족의 한이 말끔히 씻겨지는것같다.

나나 여기 동포들이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것은 조국의 병기창들에 그득히 쌓여진 그 막능당의 절대병기들이 모두 최근 몇년새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이다. 정말로 눈 몇번 깜박이며 기쁨과 의혹, 새로운 기대의 교차속에 기연미연하는 동안 어제가 옛날이 되고 미래가 오늘로, 꿈이 현실로 되는 강국건설의 축시법이 펼쳐졌다.

희열과 함께 의문이 슬며시 머리를 들군 하였다. 경제규모가 크다는 대국들도 몇십년씩 걸린 일을 어떻게?

아마 세상사람들은 더 놀란것같다. 《조선의 첨단무기개발속도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다.》, 《극단한 제재봉쇄속에서도 몇달을 주기로 새 전략무기들을 련속 내놓군 하니 하늘의 도움을 받았다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라는 찬탄과 절망의 목소리들이 미국과 서방세계에서까지 울려나오고있다.

하늘의 도움을 받는 나라!

이야말로 수십만 관동군의 포위를 감쪽같이 뚫고 저들의 뒤통수를 치는 항일빨찌산의 령활무쌍한 축지법에 눈깔이 뒤집혀 귀신이 곡할노릇이라던 왜놈들의 비명소리와 다를바없다.

얼마나 통쾌한가. 이 얼마나 가슴후련한가.

강국건설의 축시법으로 최단시일내에 최강의 힘을 갖춘 **김정은**조선의 병기신화에 동서방을 막론하고 전 세계가 경이를 금치 못하고있는것이다.

민족의 강국념원을 실현한 **김정은**시대의 축시법전설은 행성을 진감하는 초강국신화이다.

초강국에 대해 숙고해보려니 해방전 《보국대》로 일본 북해도에까지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돌아온 어릴적 우리 마을의 할아버지 한분이 생각난다.

그 로인장이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는데 일제가 온 아시아를 집어삼키려 날뛰던 1940년대전반기의 어느날 **김일성**장군님빨찌산의 특사가 축지법을 써서 일본렬도를 휘젓고 다니다가 《대본영》에 들어가 최후통첩장을 넘겨주고 유유히 돌아갔다는 전설이다.

지금에 와서 되새겨보면 《아시아의 맹주》라는 일본보다 **김일성**장군님빨찌산이 더 강하다는 인민의 확신이 투영된 하나의 강군신화였다.

오늘날 제국주의렬강들의 맹주라는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는 분명하다.

이미 70년전에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기는 반미전승신화를 창조했던 내 나라가 이제는 미국본토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임의의 순간에 악의 제국을 결딴낼 힘과 의지, 기세를 주저없이 과시하고있다.

이 행성에 나라는 많아도 《초대국》의 위협공갈에 당당히 맞서 보복타격작전을 공개거론하는 나라, 미국의 《독립절》에 제국의 심장부를 도려낼 대륙간탄도미싸일을 쏴올리는 나라,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라는 대미초강경의지를 당당히 천명하는 나라는 오직 우리 조국뿐인것으로 알고있다.

정의의 핵강국이 포효를 터칠 때마다 온 미국땅에 지진이 일고 《북조선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지구상에 미국본토를 타격할 능력과 용기를 다 갖춘 나라는 북조선뿐이다.》, 《북조선과의 전쟁은 자멸이다.》라는 아우성들이 터져나온다.

미국으로서는 두려운게 참 많을것이다. 저들의 무장장비우세가 영원한 과거로 되고 조선의 군사기술적강세가 불가역적인것으로 다져진 오늘의 현실도 불안하지만 도저히 예측할수 없는 래일이 더욱 공포스러울것이다.

갈수록 빠른 속도로 최첨단무기들을 내놓으며 대미압박강도를 높이고있는 조선이 앞으로 5년, 10년후에는 대체 어떤 모습일것인지, 다름아닌 이것이 백악관을 괴롭히는 최대의 고민거리라는것이 세상여론의 대체적인 평인듯하다.

세월을 휘여잡는 축시법으로 강국에서 초강국으로 일약 상승하여 미국중심의 세상을 조선중심의 세상으로 바꾸어버린 그 불가사의한 단번도약, 련속도약의 힘과 속도가 제일로 무서운것이다.

10년전만 해도 평양의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놓고 《믿을수 없다.》고 험담하던 미국으로서는 조선이 단 몇년새에 《화성포—14》형으로부터 《화성포—18》형까지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무려 다섯차례나 갱신한 사실이 놀랍고도 두려울것이며 그 폭발적인 전진가속도로 대체 어디까지 나아가려는것인지 생각만 해봐도 소름끼칠것이다.

령토도 인구도 작은 나라가 믿기 어려운 축시법으로 제국주의괴수를 디디고 올라 피할수 없는 최후멸망의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바로 이것이 행성을 진감하는 초강국신화가 아니겠는가.

한번 또 한번 대지를 박찰 때마다 더 높이 도약하는 《화성포》의 격렬한 솟구침마냥 세월을 주름잡아 련속도약하며 세기의 상상봉에로 치달아오르는 우리 조국이야말로 21세기의 최강국이라고 나는 소리높이 자랑한다.

김정은시대 축시법—위민헌신의 산아

자고로 동방에서는 여의주가 동경의 대상으로 되여왔다. 손에 쥐면 온갖 조화를 다 부릴수 있다는 그 령묘한 구슬이 고구려벽화무덤들에 그려져있는것도, 몇년전 어느한 나라의 정부수반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여의주를 물고있는 룡의 모습을 형상한 도자공예품을 선물로 올린것도 그런 사연에서일것이다.

자신의 의지대로 세월을 앞당겨 기적을 창조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설적위인상을 우러르느라면 정말 《여의주》를 지니신게 아닐가 하는 생각을 금할수 없게 된다.

그이께서 나라를 이끄신 년조는 그리 길지 않으며 력사의 한순간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허나 그 나날에 이룩하신 업적은 벌써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전대미문의것이다. 조국과 인민이 나아갈 백승의 진로를 환히 밝혀주신 사상리론적업적도 인류사상사의 거봉을 이루었고 최악의 시련속에서 최강의 힘을 비축하신 국가핵무력건설업적도 민족사에 길이 빛날 대공이며 자력자강의 거창한 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신 문명건설의 업적도 그 높이가 저 하늘에 닿고있다.

일전에 어느 책에서 보니 인류건축사에 이름을 남긴 유명건축가들이 일생동안 남긴 유산은 보통 10개 남짓한 정도였다.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직접 발기자,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일떠세우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어언간 수백개에 이르러 조국인민들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듯 눈부신 대업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방면에서 이루시였으니 동서고금의 뭇위인들의 공적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그 지대한 업적을 어찌 비범성, 천재성의 산물이라고만 하랴.

작은 초불도 자기를 깡그리 태워야 주위에 빛을 뿌릴수 있다. 하물며 억만의 시간을 단 몇년으로 주름잡아 이룩하신 신화적인 기적들은 얼마나 거대한 희생을 전제로 할것인가.

언제나 인민에 대한 열화의 정으로 뜨거운 절세위인의 위대한 심장의 토로를 삼가 새기여본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의 제일재부로 소중히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발도 헤치며 미래의 휘황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입니다.》

인민을 위해 만짐을 지고!

인민을 위해 가시발도 헤치며!

휘황한 미래가 어떻게 세월을 앞당겨 조국땅에 펼쳐지고있는것인지, 어느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세인을 경탄시키는 전설같은 기적들이 연해연송 이어지고있는것인지 뉘라서 모르겠는가.

조선을 세계의 정상에 떠올린 **김정은**축시법의 《여의주》는 그 어떤 전설속에 있는것이 아니라 다름아닌 그분의 위대한 심장속에 있었던것이다.

지금 우리 해외동포들은 조국의 전진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세기적목표들을 끊임없이 점령하는 련속비약의 주기가 비상히 짧아지고있음을 직감하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강국의 그 놀라운 발전가속도의 비결에 대해 더듬어보려니 얼마전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몇개의 수자들이 다시금 떠오른다.

문수물놀이장형성안 113건, 미래과학자거리형성안 590여건, 려명거리형성안 1 390여건,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 2 000여건, 삼지연시형성안 무려 8 800여건…

수자는 말이 없어도 후더운 격정의 파도를 내 가슴에 세차게 일으켜준다.

그이께 있어서 인민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가.

혈육이고 고향이며 조국, 필경 사랑의 전부이리라. 품을수록 더 품안아주고싶고 그를 위해 복무함이 락으로 되는 희열의 제일 큰 샘이리라. 한겨울에도 꽃피는 봄을 안겨주고싶고 일년에도 열두번의 황금가을을 마련해주고싶어 심신을 깡그리 태우게 하여주는 애국헌신의 열원이며 대상이리라.

그래서 그이의 인민사랑은 갈수록 더욱 뜨거워지는것이며 그이의 위민헌신은 더더욱 눈물겹게 펼쳐지는것이 아니겠는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다른 조국의 눈부신 전진속도, 갈수록 더욱 무섭게 질주하고 상승하는 **김정은**조선의 발전가속도는 바로 작열하는 태양에만 비길수 있는 거룩한 위민헌신의 열도에 비례하는것이였다.

조국의 인민들중 누구도 모른다고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체 언제 주무시고 언제 새날의 일과를 시작하시는지.

허나 나어린 소년단원들도 이것만은 알고있다고 한다.

나라에서 맨 선참으로 새벽문을 여시고 강행군을 불철주야로 이어가시는분이 다름아닌 **김정은**원수님이시라는것을.

그이께서 바치신 위민헌신의 로고가 있어 전설의 축시법이 조국땅우에 펼쳐지고 세인을 놀래우는 마식령속도, 새로운 평양속도와 같은 신화적인 건설속도가 창조될수 있었으며 극초음속미싸일의 속도와 같은 국방발전속도도 이루어질수 있었다는것을.

흔히 사람들은 말하군 한다. 아무도 정복할수 없고 임금도 제왕도 어쩔수없이 복종해야 하는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허나 자신의 의지대로 시간을 다스리시며 하루를 백날천날맞잡이로 분투하시는분, 그렇게 안아오신 천금같은 시간으로 조국과 인민에게 축시법의 날개를 달아주시는분이 계시니 바로 내 조국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신것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공화국처럼 적대세력들의 끈질기고 야만적인 제재봉쇄속에서 국가건설을 진행한 례가 인류사에 있어본적 없다.

미증유의 압박속에서 진행되는 간고하고 특수한 상황인것으로 하여 전진속도가 조금이라도 늦춰지면 곧 적대세력들의 외부적압력에 눌리워 답보하고 침체하게 되며 종당에는 좌절을 면치 못하게 되여있는것이 바로 우리 조국일것이다.

허나 빠르면 빠를수록 힘은 커진다. 조선의 질풍노도는 그 속도자체가 불가항력의 증가로 이어지며 적대세력들의 압력을 걸음마다 쳐갈기고있다.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전대미문의 악랄한 도전속에서 오히려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전설적인 축시법을 능란하게 구사하시는 걸출한 위인을 모신것이야말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받아안은 커다란 행운이 아닐수 없다.

나는 믿어의심치 않는다.

전설의 축시법으로 우리 공화국을 세기의 령마루에로 이끌어가시는 절세위인께서 계시여 공화국은 나날이 더욱 거세찬 비약의 폭풍을 일으키며 모든 면에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올라선 천하제일강국으로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어머니당

10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 조선로동당기가 펄럭이고 인민의 기쁨과 환희는 강산에 차넘치고있다.

자기 력사에 78번째의 년륜을 새기는 성스러운 조선로동당.

이 지구상에는 200여개의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명칭이 각이한 수많은 당들이 존재하고있으나 온 나라 인민이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당창건일이 말그대로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되고있는것은 오직 이 땅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깊은 화폭이다.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창건을 선포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70여년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오고있다.

남녀로소 누구나가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부르며 자기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 당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 조선로동당뿐이다.

조선로동당에 대한 인민의 신뢰심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당에 대한 노래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당은 나의 어머니》, 《그대밖에 내 몰라라》,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 《당을 노래하노라》, 《당이여 나의 어머니시여》,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어머니당이여》, 《당의 품은 우리 사는 집》,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당이여》, 《우리 어머니》…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는 진정한 인민의 당이기에 사람들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는것이다.

당의 모습은 당을 이끄는 령도자의 모습이다.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위대한 당으로 강화발전되여올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데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혁명사상을 당의 지도사상으로, 그리고 근로하는 인민의 리익과 념원실현을 당의 투쟁목표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직적골간으로 하여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였다.

지금도 조선로동당을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던 나날 몸소 당마크의 도안을 완성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몸소 당마크를 제정할것을 발기하시고 다른 나라의것처럼 로동자, 농민만을 형상하고 지식인을 제쳐놓은 당마크도안들의 부족점도 깨우쳐주시며 마치와 낫과 함께 붓대를 세워주신 수령님, 지식인의 상징도 펜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붓을 그려넣도록 하시고 마치와 낫도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모방할것이 아니라 우리 로동자들이 쓰는 마치, 우리 농민들이 쓰는 조선낫을 그려넣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수령님의 손길아래서 근로하는 전체 조선인민의 모습을 담은 당마크가 태여날수 있었다.

그날 그려주신 당마크도안에는 조선로동당을 인민을 품어안고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어머니당으로 건설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있었다.

그때부터 조선로동당은 오로지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왔다.

주체52(1963)년 12월 황해북도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현지에서 일군들의 협의회를 소집하신적이 있었다.

회의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아직 농민들의 생활이 펴이지 못했고 특히 어린이들의 겨울옷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였다고 심려의 말씀을 하시였다.

협의회가 있기 며칠전 양지바른 산기슭에 자리잡은 중학교앞을 지나시면서 솜옷을 입지 못한채 길가에서 노는 학생들을 만나시였던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의 언 손을 감싸쥐시며 춥지 않느냐고 물으시였다. 춥지 않다고 말씀올리는 아이들의 등을 어루만지시며 그이께서는 춥지 않다니, 이렇게 홑것을 입었는데 왜 춥지 않겠는가고 하시며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 일을 더듬으시며 인민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것은 당이 자기들의 어머니이기때문이라고, 이름그대로 어머니당인데 아이들이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것을 보고도 본체만체하고서야 어떻게 어머니당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고 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황해북도를 다녀가신 후 전국의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솜옷과 모자를 무상으로 공급할데 대한 공화국내각 결정이 채택되게 되였다.

수학에는 공식이 있지만 혁명을 하는데는 그 어떤 고정불변한 공식이란 있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의 정책을 작성하고 하나의 로선을 제시하시여도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를 반영하신 어버이수령님이시다.

나라가 해방된 그 이듬해 발포해주신 력사적인 토지개혁법령, 사회주의기업관리방법인 대안의 사업체계,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등 그이께서 내놓으신 모든 로선과 정책은 다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것으로 하여 근로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

당의 운명과 밝은 전도는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자기의 성격과 사명, 근본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빛나게 계승하는데 달려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수위에 모시여 자기의 본태를 변함없이 꿋꿋이 이어오게 되였다.

어느해 2월 어느날 자신의 생신날을 검소하게 보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은 우리 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일군들은 인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대중의 어머니로서의 구실을 해야 한다, 일군들은 어머니가 자식들의 밥그릇에 마음을 쓰듯 정성을 쏟아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진심으로 세심히 보살펴주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내놓으시고 우리 당은 말하는 당이 아니라 일하며 투쟁하는 당이라고 하시며 조선로동당을 철두철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활동하며 투쟁하는 당으로 건설해나가시였다.

대를 이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것은 공화국인민의 행운중의 행운이다.

비범한 자질과 출중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의 인민사랑의 력사는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주체101(2012)년 10월 뜻깊은 공연무대우에 모셔진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 인민들을 보시면서 격정을 누르지 못하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신에게는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인민이 장군님의 영상으로 안겨온다고, 자신께서는 장군님을 모시듯이 우리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해나가겠다는 생각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길을 앞장에서 헤치시며 일군들에게도 인민을 위한 일에 한몸바쳐야 하며 거기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끝없이 새겨가시는 위민헌신의 자욱우에 인민의 웃음과 행복이 활짝 꽃펴나고있다.

인민들에게 행복의 창조물을 안겨주실 때면 그리도 기쁘시여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며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정담아 말씀하시고 인민이 불행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리도 가슴아파하시며 그 불행을 하루빨리 가셔주시려 수천리 먼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민헌신의 려정우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으로, 혁명적당풍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였다.

인민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락을 같이하면서 힘과 용기를 주고 성심성의로 도와주는것이 조선로동당이 응당 해야 할 최우선과업중의 하나이다, 기쁠때도 힘들 때도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있는 당중앙위원회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이다.

천만식솔의 마지막 한사람까지 다 품어안아 시련의 난파도속에서 굳건히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속에 수재민들이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군당일군들은 야외의 천막에서 일하는 세상에 없는 감동깊은 일화도 생겨났으며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농장원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며 비내리는 포전에서 넘어진 강냉이대를 함께 일으켜세우는 화폭이 수놓아질수 있었다. 또 재해지역으로 최정예수도당원사단과 인민군부대들이 급파되는 경이적인 현실도 펼쳐질수 있었다.

이 위대한 사랑속에서 지난 8월 태풍피해를 입은 강원도 안변군 오계농장과 월랑농장의 침수된 농경지들이 단 며칠새에 환원복구되고 황금의 벼바다가 펼쳐질수 있게 되였다.

진정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조선로동당이 어머니당으로 더욱 자랑떨치며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것이다.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이 있어 인민은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그 어떤 격난도 두려움없이 뚫고헤치며 사회주의강국의 밝은 래일을 힘차게 마중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주일봉

언제나 인민이 있다 령도자의 마음속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돌이켜보는 공화국인민들이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기는것이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 첫자리에는 언제나 인민이 있다는것이다.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시여 국경을 넘으시는 시각에도 인민들의 평안과 사업성과를 축원해주시고 조국에 돌아오신 그 새벽에도 제일먼저 인민들에게 따뜻한 귀국인사를 보내주시였으며 평양역에 도착하시여서는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며 오래도록 손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언제인가 외국방문을 마치시고 조국으로 돌아오시는 길에서도 이럴 때에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노래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시며 이 땅을 부둥켜안고싶으신 심정을 절절히 터놓으시였고 또 언제인가는 일군들은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문명국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시간을 분과 초로 쪼개가며 뛰고 또 뛰여야 하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공화국인민들이 뜨겁게 추억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려정에는 그이께서 단행하신 2018년 여름철의 초강도강행군길도 있다.

그해 6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쌓인 피로를 푸실 사이도 없이 평안북도와 삼지연시, 함경북도와 강원도의 여러 단위들을 찾아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였다. 그리고 8월에는 새형의 무궤도전차와 궤도전차에 대한 시운전을 몸소 지도하시였고 삼천메기공장, 금산포젓갈가공공장, 새로 건설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양덕군안의 온천지구를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도 인민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그 나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일군들이 잠시라도 쉬시옵기를 간청드릴 때면 흔연하신 어조로 일없다고, 할 일이 많은데 시간이 모자라는것이 걱정이라고 늘 말씀하군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울수만 있다면 한몸이 설사 한알의 모래알이 되여 후대들이 걸어갈 길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숭고한 인생관, 우리가 1년 고생하면 조국은 10년 발전하게 된다는 그이의 고결한 진정이 어려있는 그 희생적인 위민헌신의 길우에서 인민이 안겨살 문명의 별천지들과 따뜻한 보금자리들이 일떠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은정어린 젖제품과 새 교복들, 학용품들이 마련되였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펼쳐졌다.

지난해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었던 악성전염병이 공화국의 경내에 침습했던 그때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세계보건사에 있어보지 못한 기적, 방역대승을 안아오신분도 다름아닌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지금도 지난해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전에 참전하여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군의부문 전투원들앞에서 하신 뜻깊은 축하연설의 구절구절은 만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오늘 동무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이 자리에 서니 나라에 들이닥친 돌발적인 전염병확산으로 국가최대방역위기사태가 발령되고 그로 하여 수도는 물론 온 나라가 마치 어디론가 훌쩍 떠나가기라도 한듯 숨죽은듯이 조용했던 지난 5월 14일과 15일의 그밤 사람 한명 찾아볼수 없는 텅 빈 거리들을 돌아보며 무너져내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던 순간도 생생히 떠오르고 처음 맞다든 보건사태로 약국들에 의약품이 수요대로 공급되지 않아 줄을 서고 붐비는 주민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기만 할수밖에 없었던 속타들던 순간들 그리고 매일같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전염병전파상황을 보고받던 순간들도 떠오르고 가장 어려웠던 순간 우리 군대에 운명처럼 마음과 믿음을 통채로 맡기고싶던 그 나날들에 내가 느꼈던 그 심정을 다시금 돌이켜보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간고했던 91일간의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방역사업을 지도해주신 령도문건만 해도 무려 1 772건에 2만 2 956페지나 된다는 놀라운 사실 그리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고열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인민들생각으로 한순간도 자리에 누우실수 없으시였다는 가슴치는 사실을 후날에야 접하면서 인민들은 얼마나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쏟고 또 쏟았던가.

력사에는 수많은 정치가들과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여있다.

하지만 경애하는 원수님처럼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다 바치시는 위대한 인민의 어버이를 세상은 알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로 사랑하시던 우리 인민들이 모든것이 흥하고 풍족한 강국에서 만복을 누리게 될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시간을 쪼개가며 일하고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주체조선, 사랑하는 공화국인민을 위하여 이 나라의 새벽문을 남먼저 여시며 불철주야 위민헌신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참으로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에 의해 이 땅에서는 인민의 행복의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날로 더욱 커가고있다.

하기에 이 나라 인민은 웨친다.

우리는 경애하는 원수님밖에 그 누구도 모른다!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리라!

오향숙

그 품 떠나 못사는 인민

공화국에서 인민들이 제일 반기고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

누구나 접하면 크나큰 격정에 휩싸이는 소식, 힘들고 지쳤다가도 들으면 슬기와 용맹이 샘솟고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설레이는 소식,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혁명활동보도소식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의 나날에도 공화국의 인민들은 아침이면 누구나 《로동신문》부터 펼쳐보고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새날의 보도에 귀를 기울이며 그이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것은 비단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나날만이 아니다. 이 땅에서 펼쳐지는 일상생활이다.

하다면 어이하여 공화국인민들은 령도자의 거룩한 발자취에 언제나 마음과 보폭을 따라세우고있는것인가.

이 땅에 흘러온 지난 10여년의 날과 달들은 공화국인민들이 무엇때문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언제나 그이를 따라서고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지금도 잊을수 없다. 조선로동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장에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가 많이 생각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싶은 마음속고백, 마음속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말씀을.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방역대전에서의 승리를 총화하시는 그 뜻깊은 자리에서도 기쁠 때도, 어려울 때도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조차 나를 다잡아주고 항상 떠밀어 일으켜세워주는 《인민》이라는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단 한명도 절대로 잃을수 없는, 잃어서는 안될 피와 살점과도 같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처럼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에서 더없는 삶의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위민헌신의 려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고계신다.

돌이켜보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이 땅에서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창조되였는가.

모든것이 부족하고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도 평양에 해마다 인민의 리상거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자립경제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였다. 또한 그 누구도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이 비축되였다.

올해에만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에 의해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 무한한 발전잠재력과 저력을 과시하는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 세인을 경탄케 했다.

…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2023년도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숭고한 리상과 포부를 안고 농촌진흥의 새시대, 자립경제발전의 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 의해 누리에 빛나는 강국의 존엄과 국위에서 그리고 누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서 원수님의 품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것을 다 준대도 바꿀수 없는 운명의 전부이며 영원한 삶의 품이라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이런 인민이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회의에서 모두다 위대한 우리 조국의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총분기할데 대하여 하신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올해를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지금 이 시각에도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곁에 마음을 따라세우며 숨결도 보폭도 그이와 함께 하고있다.

신학철

시묶음

10월에 부르는 신념의 노래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르는 노래—

축하의 인사 드리옵니다

함세환

뜻깊은 당창건기념일
우리는 당기를 경건히 우러릅니다
시련의 날에나 기쁨의 날에나
오직 한마음 믿고 따른 조선로동당
어머니당에 축하를 드리옵니다

옥중의 세월 간수들의 눈초리 피해
감방벽에 로동당만세의 글발
피로 새겨야만 했던 우리 아닙니까
당기가 나붓기는 조국의 하늘
얼마나 그리워 가슴젖던 10월이였습니까

죽어 넋이라도 안기고싶던 어머니
그 품이 붉은 당기폭을 펼쳐
비전향장기수 모두를 싸안아준
그날로부터 오늘의 10월까지
사무치게 갈마드는 생각이여

아, 우리에게 당이 없었다면
꿈에선들 바랄수 있었겠습니까
살아선 열수 없다던 지옥의 철문
승리자의 자부 안고 나서는 그 기적을
기껏 몇달을 넘기지 못하리라던
페인의 생이 불로장수하는 희열을

백발에 옥동녀를 안아본 기쁨
그 경사도 은혜론 당이 주었습니다
우리 사는 집집에 해빛처럼 스며드는
사랑이 끝없어 행복도 끝없으니
피절은 한생에 간절했던 소원
다 이루고삽니다 당의 품에서

가슴에 빛뿌리는 영웅메달 보아도
조국통일상메달을 쓸어보아도
울컥 가슴을 치는 격정
어머니, 어머니당이 없었더라면
우리 어떻게 신념의 강자이겠습니까
그 누가 영웅으로 내세워주겠습니까

정녕 당이 없었다면
영영 암흑에 묻혔을 불우한 인생
의지할 마음의 기둥이 없었다면
전향의 강요에 열백번도 무너졌을 우리
죽어도 막돌처럼 버림받았으려니

신념으로 값높은 추억을 주고
빛나는 삶의 자욱 새기게 해준 당
운명의 명줄처럼 당기폭을 부여잡고
머리숙여 고마움의 큰절 드리옵니다
생이 다할 때까지 백옥같은 진정 바쳐갈
어머니당이여, 축하의 인사 드리옵니다!

영원한 심장의 박동소리

최선묵

이제 며칠이면 10월 10일이라며
보조개를 패우던 손녀도 잠들고
창밖의 별들만이 총총한 이밤
이내 흉벽을 두드리는 소리

—똑 똑 똑…
아, 이런 고요한 밤이면
간수들의 살벌한 감시속을 꿰찌르며
철창속을 누비던 통방소리

—동지들,
래일은 10월 10일이다!

고요를 깨치는 그 통방신호에
고문으로 살이 터지고 뼈 부서졌어도
서로서로 의지하고 기대이며
기발대처럼 우뚝 일떠섰거니

그 통방소리
아들을 불러찾는 어머니의 목소리인듯
피젖은 이 가슴에 흘러드는
우리 당의 숨결이런듯
멎어가던 심장의 박동 높뛰게 했어라

몸은 비록 0.75평
무덤같은 감방속에 홀로 있다 해도
당의 손길이 내곁에 가까이 있음이
나를 감싸주는 동지들 있음이
얼마나 이 마음 부풀게 하였던가

이 아들을 굳게 믿는
당의 믿음만은 저버릴수 없어
수인번호는 가슴팍에 붙어있었어도
내 심장속에 새긴 당원증번호 외우며
죽음을 이겼고 신념을 지켰어라

당원의 지조 버리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기에
하루가 십년같은 철창속의 30여년
신념의 통방소리
당원의 넋을 지켜 울려왔거니

어이 그 세월에만 울렸으랴
이밤도 나를 불러 울리는 통방소리
한생의 끝까지 내 심장 울리여줄
신념의 영원한 박동소리여

—김정은원수님 받들어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

대표증

김동기

나의 집엔 있어라
우리 당기폭의 한자락인듯
붉은 빛갈 눈부신 대표증이
수령님과 장군님 태양의 영상
환하게 모신 당 제7차대회 대표증이

잊을수 있으랴
대표증 받아안던 그날의 그 격동을
나라위해 큰 공 세운것 없고
받은 사랑에 보답조차 다하지 못한
우릴 불러주시다니 영광의 대회장에

날마다 변모되는 조국의 아름다움에
모래 한삽 보탠적 있던가
벽돌 한장 쌓은적 있었던가
있다면 당원의 신념 지킨것 하나뿐인데
너무도 마땅한 전사의 도리
천금만금으로 빛내주시는 원수님

매일 아침 깨여날 때에도
깊은 밤 잠자리에 들 때에도
다시 보고 또 보는 당대회대표증
볼수록 축축히 눈물로 젖어드는
우리 집 가보중의 제일가보여

오늘도 쓸어보노라 영광의 대표증
원수님 안겨주신 사랑의 이 증서는
당을 따라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라고
우리 당이 안겨준 믿음의 징표
죽어도 못버릴 당원의 심장이여라

원수님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칠 맹세
이 가슴에 꽉 채워주는 대표증
우리 당을 받들어
인생의 마무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없이 깨우치는 신념과 의리의 교과서여!

당원의 마음에 티가 앉을세라
때로 보은의 마음 느슨해질세라
나는 보고 또 보노라
아, 당원의 자각 본분을 되새겨주는
붉은 대표증—량심의 거울이여!

나는 젊어집니다

리경구

주책머리 없다 마십시오
아흔나이 인생이 젊음을 말한다고
세월따라 이 몸은 늙어만 가도
마음은 세월따라 젊어만집니다

어찌 젊어지지 않겠습니까
15척담장속에서 수십년세월
꿈속에서도 사무치게 그려보던 내 조국
날마다 젊어지고 아름다와지는데

내 아침마다 즐겨 거니는 대동강반
옥구슬 푸른 물에 마음도 푸르러집니다
저 송화거리와 화성거리
볼수록 흐뭇해 웃음도 절로
양덕땅 온천물에 이 몸을 푹 잠그면
철없던 유년시절 되돌아온듯

한폭의 명화같은 농촌마을 새집들은
얼마나 황홀한지 살고픈 맘 간절하고
중평과 련포의 멋진 온실
눈시린 은빛지붕 정말 경관입니다
최강의 힘 떨치는 내 조국의 위용은
백발의 이 몸에 억센 힘 더해줍니다

이 벅찬 시대의 숨결을 호흡하는
이 마음 아흔이라 늙을수 있겠습니까
로쇠한 이 몸에 활력을 부어주고
가슴의 피 열정으로 펄펄 끓여주는
아, 로동당세월은 정말 좋은 세월입니다

주책머리 없다 마십시오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젊어지는 조국과 더불어
우리 원수님 여생 다해 받들어갈
로당원의 이 마음 푸르청청합니다

한점 부끄럼없이

한장호

당창건기념일에 입고 나설 새옷
벌써부터 어서 입어보라 정말 극성이라오
거울앞에 나를 내세우더니
안해는 옷매무시 깐깐히 살펴주고
자식들 넥타이 반듯이 잡아주오

옷이 날개라 백살 넘긴 이 몸도
홍안의 옛시절로 돌아온듯
거울속에 비껴있는 나의 모습
정말 피절은 수의를 걸치고
고통속에 숨져가던 내가 옳긴 옳단 말이요?

조국에서 10월은 경축의 명절이여도
지옥에서의 10월은 치렬한 결전의 날
당원의 가슴에서 당을 지워버리려
이날이면 더욱 기승부리던 교형리들
그날엔 더 많은 피 흘려야 했으니

어찌 산 사람이라 할수 있었겠소
전향의 그 악착한 뭇매에
처참하게 짓이겨지던 나는 숨쉬는 화석
한겹 엷은 수의마저 다 찢기고 터져
이 작은 체구마저 감싸줄수 없었다오

나라없던 그 시절 넝마가 부끄러워
어머니 등뒤에 몸가리우던 소년
어제날의 소년은 나섰소
다 해지고 피가 게발린 수의를 걸쳤어도
원쑤들앞에는 당당하게
어머니 우리 당앞에는 부끄럼없이

수의는 피에 물들수는 있었어도
배신의 검정물로 물들일수 없은
당원의 이 신념
살점과 함께 수의는 찢겨졌어도
한번도 찢기지 않았소 당원의 신념만은

수십년세월 철창속의 나의 모습과
하늘땅차이로 달라진 오늘의 내 모습
허나 순간일망정 그때를 잊고 산다면
아무리 좋은 옷 차려입고 나서도
내 인생 넝마같은 생으로 부끄러울거요

당을 지켜 강쇠같던 이 마음
변색이 없으라고 녹물이 들지 말라고
어제날의 나의 모습은 말해준다오
아, 당을 받들어 한본새로 살라
한점 부끄럼없이 떳떳하게

10월에 다지는 맹세

고광인

맑고 푸른 10월의 하늘가에
휘날리는 우리 당기발
기운차게 펄럭이는 기폭소리
류다른 인생 걸어온 나의 가슴에
못잊을 추억 속삭여주누나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에
걸어온 한생 뒤돌아보느라면
어쩔수 없는 후회가 따른다 했건만
오직 당만을 따른 나의 한생은
후회없는 행복과 영광의 한생

한없이 따스한 당의 품은
차디찬 감방에서 숨져가던 나를 안아
새 생명의 숨결 부어준 어머니의 품
당기발의 붉은 빛발은
쇠덩이도 삭아 부서진다는 옥중 30여년
지옥의 어둠을 이기게 한 승리의 빛발

시련의 길에 퇴색되였으랴
광풍이 몰아친다 찢기였으랴
성스런 당기발앞에서
내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부터
우리 당의 위대함 불패함을
심장으로 느꼈고 뼈에 깊이 새겼나니

세상 어디에도 없어라
우리 당처럼 강하고 억세인 당이
어제날의 약소국을 위대한 강국으로
존엄의 최절정에 우뚝 올려세우고
폭제와 강권을 산산이 들부시며
정의의 힘으로 세계를 이끄는 향도의 당

우러러 따르지 않을수 있으랴
어이 진정 바쳐 받들지 않으랴
이런 위대하고 숭엄하고 존엄높은 당
내 열백번 단두대에 다시 선대도
당을 위해 기꺼이 웃으며 서리라

오, 세상천하 둘러봐도 우리 당이 제일
10월의 하늘가 당기를 우러르며
가다듬는 신념의 맹세여
백발의 기수들인 비전향장기수
우리는 죽어도 당기발을 놓지 않으리라
영원히 어머니당의 아들로 살리라!

교육자들을 시대의 앞자리에 내세워주는 품

몇해전 중국연변대학의 한 교수는 자기의 글 《김정은시대 조선의 모습》에서 이렇게 언급하였다.

《…2018년 4월말 나는 초빙강의를 하였다. 유명한 교수들도 방청한다기에 강의안을 열심히 준비하였다. 나는 청강자들에게 〈2017년 4월 평양에 려명거리가 새로 건설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배려에 의하여 무상으로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배정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교원가족들이 이사하는 장면과 살림집내부구조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강의를 방청하던 관록있는 교수들을 포함한 교원들과 학생들은 놀라움과 경탄으로 웅성거리더니 요란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순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박사로서, 희한한 공화국현실의 목격자로서의 긍지감이 온몸을 감싸안았다.》

그도 말했듯이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은 교육자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며 내세우는 공화국의 현실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면서 조선의 교육자들이야말로 이 세상 가장 행복한 교육자들이라고 부러움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교원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는것은 교육이 상업화, 영업화되여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교원들이 직업적인 혁명가, 애국자로 높이 떠받들리우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비롯하여 창전거리와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경루동을 비롯하여 희한하게 일떠선 살림집들에서 사는 교육자들을 놓고보아도 공화국에서 교육자들이 얼마나 높이 우대받고 떠받들리우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직업적인 혁명가, 애국자!

사람마다 직분이 있고 맡은 일터가 있지만 이렇듯 고귀한 부름과 더불어 후대들을 키우는 성스러운 교단에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사람들은 공화국의 교원들밖에 없다.

공화국의 교육자들이 누구나 쉽게 오르지 못할 영광의 단상우에서 자기의 존엄을 빛내일수 있는것은 그들을 안아주고 내세워주는 자애로운 품이 있기때문이다.

창전거리에 입사한 교육자가정을 찾으시여 거목도 뿌리는 보이지 않는것처럼 교원들이 바치는 헌신과 진정이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지만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후대들에 의해 나타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 가정은 조국의 미래를 맡아키우는데 량심을 바쳐가는 애국자가정이라고, 찾아온 보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몇해전 9월에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한 교원들을 만나주시고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산골학교들에 자원진출하여 후대들을 위해 헌신하고있는 교원들은 다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의 인생관을 온 나라가 따라배우도록 할데 대하여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그날 경애하는 그이께서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 당이 바라는 일에 한몸 아낌없이 내대는 투철한 신념과 백옥같은 충정의 마음으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교원혁명가로서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이들의 순결한 애국심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진정넘친 어조로 말씀하실 때 교육자들의 가슴속에 북받치던 격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겠는가.

그 감격적인 화폭앞에서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교육자들을 참된 혁명가, 애국자들로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심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당과 국가의 배려로 돈 한푼 내지 않고 공부하며 성장한 이 나라의 교육자들이기에 후대들을 위해 자기를 바치는것을 응당한것으로 여기고있다.

하건만 한생 묵묵히 깨끗한 량심과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그들의 애국의 마음을 그리도 소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기에 평범한 교원도, 교육자가정도 온 나라가 다 아는 애국자, 애국자가정으로 내세워주신것이다.

이렇듯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 이 땅의 교육자들이 안겨산다.

공화국의 현실은 절세위인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야말로 참된 교육자, 애국자들을 키워내는 자양분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리연선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추가된 교육자살림집건설공사액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교육자들이 있지만 공화국처럼 교육자들이 조국의 미래를 키우는 애국자, 직업적혁명가로 떠받들리우며 빛나는 삶을 누려가는 나라는 없다.

여기에 이 나라의 교육자들이 안겨사는 품이 얼마나 자애롭고 위대한 품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혁명일화가 있다.

주체39(1950)년 4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홍명희부수상을 만나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어떻게 오셨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보고를 다 들어주시고 결론을 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문득 평양시 교원주택설계를 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예? 아직…》

그가 교원들의 생활에 미처 관심을 돌리지 못한 자책으로 자신을 반성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원살림집은 대학교원들을 위하여 건설하는것인데 잘 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동평양에 지은 로동자살림집은 세대별로 살림집과 부엌, 위생실이 있는데 대학교원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대학교원들은 과학연구사업을 하기때문에 집에 응접실도 있고 서재도 있어야 한다고, 돈이 좀 들더라도 대학교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때 동평양에는 10여동의 로동자살림집이 건설되고있었는데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고있었다.

그 살림집은 당시로서는 국내에서 일떠서고있는 건물들가운데서 가장 현대적인 살림집이였다.

그런데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교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하고 문화정서생활을 하면서 휴식할수 있게 그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살림집을 건설해주도록 사랑의 조치를 취해주시였던것이다.

교육자들을 그토록 내세워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에 홍명희부수상은 눈굽을 적시였다.

잠시 동안을 두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 교원아빠트를 시범적으로 건설한 다음 모든 대학교원들에게 다 이런 주택조건을 마련해주자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설계가 다되면 교육성에서 국가계획위원회, 재정성,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토의하여 새 설계에 따르는 건설공사액을 추가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건설자금이 걸리면 아빠트세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잘 지어주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은정어린 조치에 의하여 시시각각 전쟁의 국면이 다가오고있던 주체39(1950)년 6월에 평양시 교원살림집건설계획수자 일부 변경에 관한 내각지시 제390호가 하달되였으며 교원살림집 138세대건설계획을 111세대로 축감하고 건설공사액을 추가하는 사랑의 전설이 새겨져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교육자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온 나라의 대학교원들은 조국해방전쟁의 그처럼 어려운 나날에도 나라의 교육사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본사기자 김진혁

교정의 륜리를 짓밟는 썩은 사회

《이 땅의 륜리도덕은 날이 갈수록 만신창이 되고있다. 인간은 있어도 정이 없고 사회는 있어도 향기가 없다. 이 땅에서는 도덕이란 말이 계절지난 상품처럼 되여버렸다.》

이것은 언제인가 괴뢰지역의 어느한 교수가 패륜과 패덕이 만연된 썩어빠진 사회현실을 개탄하여 한 말이다.

약육강식의 생존법칙, 《너》 아니면 《나》라는 극단한 개인리기주의가 사회를 지배하는 이곳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위하는 인간의 정, 고상하고 아름다운 사회적륜리도덕관계를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찾아볼수가 없다.

사회적존경과 사랑을 받아야 할 교원들이 폭행과 협박의 대상으로 되고 이로하여 신성한 교정의 륜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괴뢰사회의 실태가 이를 잘 보여주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에 각급 학교들에서 학생과 학부형들이 교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건이 수천건이나 발생하고 고등학교이하의 교육기관에서 일하던 교원 100여명이 학부형들의 신소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다고 한다.

지난해에만도 교원들이 학부형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한 사건은 202건에 달하며 이가운데 상해와 폭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올해에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반학생이 교원의 머리카락을 잡고 넘어뜨리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담임교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3학년 학생이 자기의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는 교원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미래에 대한 꿈을 안고 건전하게 자라나야 할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썩어빠진 도덕관에 물젖어 자기를 배워주는 교원들에게 무례하게 대들고 폭행하고있으니 괴뢰지역에서 교정의 륜리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런 사회의 미래가 어떠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괴뢰지역의 어느한 여론조사기관이 초등학교 교원 수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9%가 교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교원 10명중 4명은 학생들과 학부형들에 의해 협박과 위협을 당하며 교권을 침해당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있으며 그중 1명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선택을 하고있다고 한다.

지난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지 몇해 되지도 않은 애젊은 교원이 제 자식들을 비호두둔하는 학부형들의 압력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가 하면 최근에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빠트에서 초등학교 교원이 교권보장을 요구하며 떨어져 자살하였다.

이어 대전과 경기도 룡인시에서도 초등, 고등학교 교원들이 련이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교정의 륜리가 무참히 침해당하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목격한 학생들속에서 교원을 지망하던 자신들의 꿈을 포기하고있으며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들에서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의 수도 날로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시정배들은 교원들의 권리보장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넘겨씌우며 싸움에만 매달리고있다.

특히 윤석열역도와 《국민의 힘》패거리들은 학교에서 교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있는것을 이전 《정권》탓으로 넘겨씌우며 교권보장을 위한 교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모르는체하고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현상을 바로잡을 대신 불난데 바지말리는 격으로 이를 한갖 저들의 정치적리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거리로 삼는 이런 정치시정배들이 있는한 괴뢰지역에서 교원들의 교권보장문제는 한갖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본사기자 주광일

투고

젊어지는 백발, 시드는 청춘

내 나이는 지금 일흔둘이다.

하지만 사랑과 정을 주고 생의 활력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고마운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보태고저 화성거리건설장을 비롯한 대건설장들에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군 한다.

이 아침도 나는 화성거리건설장으로 달리는 마음을 안고 아침식사를 재촉하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흥겨운 가락속에 집안팎이 들썩이고 부엌에서는 감미롭고 기름진 음식냄새가 풍겨오고있었다.

대학에 다니는 손녀애가 어느새 사뿐히 나타나 《할아버지, 국제로인의 날을 축하합니다.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청아한 목소리로 인사를 하였다.

그제서야 나는 오늘이 10월 1일 국제로인의 날이라는것을 깨달았다.

…

봄시절은 멀리 흘러 우리 인생 가을인데
검은머리 희였어도 그 시절이 푸르르오

…

이날 공화국의 여기저기서 젊은 시절의 기백을 과시하는 로인들의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 등 다채로운 무대들이 펼쳐졌다.

년로자들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땀과 열정을 바친 혁명선배로 존중하고 내세워주는 우리 나라에서는 로인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는것이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세상에 으뜸가는 《로인궁전》으로 특색있게 솟아난 평양양로원을 비롯하여 나라의 은정속에 마련된 따뜻한 보금자리들에서 돌보아줄 혈육이 없는 년로자들도 날마다 기쁨의 웃음을 꽃피우며 젊어져가고있다.

60청춘, 이 땅에선 이미 수십년전부터 나이 60이 되여도 청춘이라 불러왔으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노래를 따라부르던 나의 뇌리에 문득 출판물에서 본 괴뢰지역 청년들의 비참상을 폭로한 글줄이 되새겨졌다.

《청춘에게 꿈, 가치, 행복이란 감히 말할수도, 가질수도 없는것이란 인식, 아마도 그것이 〈실패자〉와 〈유리천정〉(녀성차별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3포세대〉(련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의 출발이였으며 〈N포세대〉(모든것을 포기한 세대)의 결론이자 수저론의 기저였을것이다.》

청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 청춘은 말그대로 푸르른 봄이다.

그러나 태여난것자체가 죄로 되고 《헬(지옥)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 등이 시대어로 되고있는 괴뢰지역사회에서 청춘은 봄시절이 아닌 악몽의 나날이다.

희망, 열정, 미래로 충만된 청춘이라는 말은 《흙수저》, 《똥수저》, 《청년빈곤》, 《청년실신》, 《취업깡패》 등 차마 듣기조차 거북한 말 아닌 말로 바뀌여졌다.

꿈과 희망을 여지없이 짓밟힌 청춘들이 한많은 세상을 원망하며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있다.

《갈테면 가라지 푸르른 이 청춘… 정 둘 곳 없어라 텅 빈 마음은 차라리 젊지나 말것을…》

살아온 나날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은 청춘들이 이렇게 타락에 젖고 비애에 빠져 《나의 비극의 원인은 사회》라고 저주하며 세상과 담을 쌓은 《은둔형외토리》, 사회의 버림을 받는 《어른아이》로 되여 시들어가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다 못해 삶마저 포기하는 《N포세대》로 되여가고있으니 얼마나 비극적인 현실인가.

공화국에서는 인생의 황혼기인 로인들이 세월이야 가보라고 노래하며 60청춘, 90환갑의 복락을 누리고있을 때 저 괴뢰지역에서는 푸르고 푸르러야 할 청춘들이 세월을 원망하며 검은머리에 근심과 우울, 불안과 고통의 황혼을 얹고있다.

젊어지는 백발, 시드는 청춘.

아름다운 인간화원과 인간생지옥의 두 사회상에 대한 판이하고도 극명한 대조이다.

60청춘, 90환갑을 노래하는 공화국의 년로자들은 참으로 좋은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는 행운아들이 아니겠는가.

나를 비롯한 우리 년로자들이 부르는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는 은혜로운 품속에서 누리는 년로자들의 행복의 선률이고 어머니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여생을 깡그리 바쳐갈 보답과 맹세의 메아리이다.

…

돌아보는 인생길엔 열매익어 주렁지고
바라보는 여생길엔 행복넘칠 우리 생활
우리 당을 받들어서 한생토록 젊으리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늙을소냐

박진준

재일조선인운동사와 더불어 빛나는 애국의 필봉

애국의 붓대로 재일조선인운동을 힘있게 추동하며 주체적해외출판보도물로서의 본분을 다해온 《조선신보》가 창간 78돐을 맞이하고있다.

《민중신문》, 《우리 신문》, 《조선민보》 그리고 오늘의 《조선신보》로 그 이름이 여러번 바뀌였지만 애국애족적인 성격과 변함없는 사명으로 하여 재일동포들에게 마음의 길동무로 되고있는 《조선신보》.

그리운 조국소식과 동포사회의 희로애락이 글줄마다, 사진마다 어려있는 《조선신보》를 펼쳐보는 동포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자랑과 긍지, 희망이 가득 차넘치군 하였다.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방조자, 진정한 대변자》, 《애국의 길로 이끌어주는 스승, 참다운 길동무》…

이것이 총련 《조선신보》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정에 넘친 부름이다.

세계에는 해외교포들의 권리와 리익을 대변하는 출판물이 적지 않지만 《조선신보》처럼 위력하고 긍지높으며 권위있는 해외교포출판물은 없다.

해방직후 자그마한 등사인쇄물을 발간하는것으로 첫 자욱을 뗀 《조선신보》가 오늘과 같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두터운 사랑과 신뢰를 받는 신문으로,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해외교포신문으로 되고있는것은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어버이의 손길아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이 열리던 못잊을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영광의 년대기에는 《조선신보》의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걸어온 충성의 자욱도 력력히 새겨져있다.

조국해방후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따라 애국의 한길로 나아갈 확고한 결의밑에 투쟁에 떨쳐나선 재일동포들은 자기들의 진정한 리익과 의사를 대변하는 출판보도물을 절실하게 요구하였으며 그리하여 1945년 10월 10일 《조선신보》의 전신인 《민중신문》이 창간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당시 환경에서 글을 써본 경험있는 기자들도 부족하고 게다가 갓 태여난 신문을 요람기에 말살해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한 책동으로 하여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던 신문편집사업을 위해 해방후 어려운 속에서도 귀중한 자료들과 통신들을 보내주도록 하시여 해방된 새 조국건설소식을 알고싶어하는 동포들의 소원을 풀어주시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는 《로동신문》을 비롯한 귀중한 출판물들과 편집자료들을 보내주시고 신문사일군들에게 조국인민들의 영웅적투쟁을 주제로 한 예술영화를 보내주시여 필승의 신심을 안겨주신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사랑의 국문활자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재일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1952년 5월 애국적동포들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신문이 다시 발간되기 시작하였을 때 제일 난문제로 나선것이 국문활자였다. 그것은 2년전 미제와 일본반동들이 이 신문을 강제폐간시키면서 출판기자재들을 모두 압수하였기때문이였다.

이들의 고충을 헤아리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전쟁이 한창이던 그 준엄한 시기에 국문활자를 보내주시였다.

진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조심 조국에서 보내온 함의 뚜껑을 열었을 때 기자, 편집원들의 입에서는 《야!》 하는 탄성이 울려나왔다.

하얀 솜으로 정성담아 포장한 여러가지 호수의 윤기나는 국문활자들이 들어있었던것이다.

모두가 너무 기뻐 서로서로 손을 부여잡고 환호를 올리였다.

난관과 애로가 아무리 겹쌓여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억센 사나이들의 눈가에 뜨거운것이 맺히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에 의해 수만리길을 거쳐 전해진 국문활자들은 천금보다 귀중한 사랑의 생명소였다.

이역의 언론인들은 강력한 애국의 무기, 멸적의 총탄인이 활자로 원쑤들의 악랄한 탄압과 반동적사상공세를 짓부셔버리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로선전환방침을 견결히 옹호하고 널리 해설선전함으로써 주체적인 해외교포단체인 총련을 결성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을 주체의 궤도우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에서 발행하는 《조선신보》를 일일이 다 보아주시며 과녁이 바로서고 론리가 당당하다고 하시며 기자들을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일을 잘하고있는 혁명동지라고 높이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은 정녕 《조선신보》의 발전을 힘있게 추동한 원동력이였다.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조선신보》의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선신보》가 나아갈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동무들도 고리끼가 쓴 장편소설 《어머니》를 보았겠지만 거기에는 혁명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으나 소설을 읽고나면 혁명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조선신보》도 사람들의 감정과 기호에 맞는 소리를 하여 사람들스스로가 《조선신보》를 보고 진리를 찾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은 《조선신보》가 침체를 모르고 동포대중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될수 있게 한 휘황한 등대로 되였다.

이처럼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속에 주체조선의 해외문필가들이 억세게 자라났고 《조선신보》는 총련애국위업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는 정치사상적무기, 재일동포들의 투쟁과 생활의 길동무로 될수 있었다.

그 나날 조선신보사는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고 수많은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 인민기자, 공훈기자로 자라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을 맞으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조선신보》를 비롯한 출판선전물들을 독자들의 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대상화, 통속화하여 그 견인력을 높여야 한다고, 모든 총련일군들과 새세대들을 비롯한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의 불패성과 총련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전세대들이 걸어온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억세게 걸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오늘 《조선신보》의 명맥은 민족교육의 화원에서 자라난 총련의 미더운 새세대들에 의해 굳건히 이어지고있으며 그들의 철석같은 애국의 의지와 드높은 기세가 어려있는 기사, 편집물들은 동포사회에 승리의 신심과 용기, 미래에 대한 락관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조선신보사의 전체 일군들과 기자, 편집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높은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애족의 정신, 애국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열어나가도록 하는데서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 결의에 넘쳐있으며 자신들의 무한한 긍지를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우리는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문필가들이라고.

본사기자 전영민

개천절행사 진행

개천절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되였다.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먼저 단군제가 있었다.

리명철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 반만년의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칭송하였다.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와 귀중한 민족유산들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보금자리인 사랑하는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부국강병의 대업을 실현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애국운동에 총궐기하여야 하며 자립의 창조정신, 창조본때로 민족사를 빛내이는 성과들을 달성해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위인의 믿음속에 삶을 빛내인 재능있는 작가 (4)

조령출선생

영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다. 그래서 고대에짚트의 왕들은 피라미드를 일떠세우고 그안에 미이라로 들어앉아 영원히 노예들을 통치하려고 했고 어떤 명사나 장군들은 기념비들에 자기의 찬란한 공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민의 기억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때라야 참다운 영생을 누린다고 말할수 있다.

더우기 인민의 대표자인 령도자의 기억속에 남아있는 인간의 삶이야말로 가장 값높은 영생인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조국과 우리 인민들의 추억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작가 조령출은 분명 력사의 행운아임이 틀림없다.

고령의 몸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을 형상한 희곡 《념원》을 구상하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문을 닫은것은 1993년이였다.

작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령출선생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주시고 그의 유해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크나큰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세월은 인간들의 가슴속에 쌓인 슬픔의 덩어리를 풀어주는 명약이라는 말이 있다.

날과 달이 흐르자 친지들의 발길도 뜸해지고 자식들의 가슴에 들어찼던 슬픔도 차츰 걷히기 시작하던 주체84(1995)년 5월 어느날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작가 조령출에 대하여 회억하시면서 5대혁명가극을 만들 때 조령출을 비롯한 여러 작가들이 기본축이 되여 가극대본을 잘 썼다는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떠나간 전사를 잊지 못해하시며 영생의 삶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끝이 없었다.

주체98(2009)년 어느날 《홍루몽》창조과정을 지도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다시 작가를 뜨겁게 회억하시면서 조령출선생은 확실히 대문호이라고, 1960년대에 창작한 가극들의 대본은 거의다 그가 썼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새 세기에 재창조된 가극 《홍루몽》을 다시 보니 조령출선생이 생각난다고 하시며 그는 우리 사람들은 물론 중국사람들도 놀랄만치 각색을 잘하였다, 조령출선생이 대본과 가사를 참 잘 썼다, 그는 보기 드문 재사이며 훌륭한 작가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하시였다.

보기 드문 재사, 훌륭한 작가, 민족의 자랑!

위대한 장군님의 이 교시는 작가 조령출에 대한 최대의 평가였다.

바로 그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조령출은 생전에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국보적가치가 있는 작품을 창작할수 있었고 세상을 떠났어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작가 조령출의 인생은 위대한 령도자의 품에 안길 때 그리고 위인들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일할 때 가장 빛나는 삶, 영생의 삶을 누릴수 있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로부터 조국번영의 빛나는 시대에 이르는 기간 인민의 사랑을 받는 훌륭한 가사들을 수많이 창작한 작가 조령출은 민족의 귀중한 음악유산인 계몽기가요와 주체시대의 명곡들과 더불어 인민들의 기억속에 영생의 모습으로 살아있다.

본사기자 라국

지배와 굴종, 범죄의 력사는 감출수 없다

강점군의 만행을 매국배족의 무리 비호해나선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후 피뢰지역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만행을 일삼았다.

미군의 강탈, 릉욕, 살인 등 몸서리치는 범죄만행으로 하여 피뢰지역에서는 인민들의 재난이 그칠새 없었다.

이에 대해 1960년 당시 어느한 출판물은 《미국병정들은 남한전체가 사격장이고 움직이는 사람들모두가 표적인줄 오인하고있는지 툭하면 사람을 쏘아죽이고있다.》라고 미군의 만행을 폭로하였다.

파주사건, 군산소녀총격사건, 동두천녀인삭발사건, 부평소년직승기궤짝사건, 파주나무군사살사건 등 꼬리를 물고 매일과 같이 일어나는 미군의 야수적만행에 대한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갔다.

1962년 6월초 서울과 대구의 수천명 대학생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미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시위투쟁을 벌린것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들의 투쟁을 광범한 사회계, 언론계가 지지하며 호응해나섰다.

그러나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에 대하여 《유감》이니, 《단호히 엄중조처》니 하고 떠들며 그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그로 하여 수많은 애국적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제축출당하고 진보적대학교수들은 《정치교수》로 매도되여 박해를 당하였다.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은 또한 이른바 5개 항목의 《언론정책》이라는것을 공포하여 저들의 친미사대매국정책을 반대하는 기사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보도가 나왔을 때에는 그에 동조한 언론인들에게까지 《공동책임》을 지워 탄압하고 언론기관을 폐간시키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런가 하면 미국상전의 부추김밑에 《한미행정협정》교섭을 운운하면서 각계의 반미기운을 무마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1962년 8월에는 《미군주둔지구사고방지책》이라는것을 조작하여 미군주둔지역의 경찰력량을 강화하고 미군기지주변에 《방범대》, 《법원》의 분원, 검찰지청 등을 새로 내와 그 무슨 《위범자》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떠들어댔다.

야수적만행을 감행하는 침략자를 단속, 징벌하겠다는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단속, 징벌하겠다는 이것이야말로 친미사대에 쩌들대로 쩌든 매국노, 극악무도한 민족반역자가 아니고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행위였다.

미국의 삽살개가 되여 강점군의 만행에 항의하는 각계의 의로운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해나선 박정희군사파쑈도당의 죄행은 이자들이야말로 천추에 용서할수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라는것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조선황궁을 피로 물들인 섬나라의 야만들

피로 얼룩진 일본의 조선침략사에는 전대미문의 야수적만행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다. 그가운데는 1895년(을미년)에 명성황후를 살해한 흉악한 범죄행위도 있다.

19세기말 조선에 대한 짜리로씨야의 세력권확장으로 저들의 대조선침략계획이 파탄될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일제는 륙군중장 미우라를 조선주재 일본공사로 임명하여 조선봉건정부의 실제적인 권력자였던 명성황후를 저들의 손으로 직접 살해하기 위한 흉악한 음모를 꾸미였다.

1895년 10월 8일 이른새벽 미우라의 총지휘밑에 일본군대, 경찰, 민간인깡패 등으로 무어진 살인귀들은 경복궁의 광화문으로 달려갔다. 황궁을 지키고있던 시위대의 저항에 부딪친 악당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다.

살인귀들은 총격전끝에 시위대 련대장을 사살하고 황제의 거처지를 포위하였다. 황제에게 황후를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그를 감금해놓고 황후의 침전으로 달려들어 이리떼마냥 그를 찾아돌아쳤다. 하지만 야수들의 총소리와 군화소리에 질겁한 숱한 궁녀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달아나는 혼잡속에서 그를 쉽게 찾아낼수 없었다. 피에 주린 야수들은 살기를 번뜩이며 궁녀들을 닥치는대로 란도질하였다. 그러다가 궁녀들속에서 명성황후를 발견한 살인귀들은 그의 머리태를 잡아끌어 대청마루에 내다가 큰 칼로 란도질하였다.

그리고 숨이 채 지지 않은 그를 장작더미우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린 다음 불태워버리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이 살인악당들은 타다남은 명성황후의 유골마저 못에 집어던지였다.

저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미우라는 《이것으로써 조선은 드디여 일본의것으로 되였다.》고 뻔뻔스럽게 뇌까렸다.

이렇게 일제는 당시 조선봉건국가권력의 대표자의 한 사람이였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학살함으로써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강도적으로 란폭하게 침해하는 특대형범죄를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파렴치하게도 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목적밑에 증인들과 흔적들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명성황후살해사건의 모든 책임을 대원군과 조선인훈련대에 넘겨씌우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즉시에 반격을 받고 명성황후살해사건은 점차 국제적문제로 번져졌다. 바빠맞은 일제는 사건관계자들을 히로시마감옥에 림시《구금》하는 기만적인 놀음을 벌리였고 나중에는 《증거불명》이라는 구실을 내대고 인차 무죄석방하였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을 통하여 드러난 일제의 야만성과 악랄성, 후안무치성은 당시 짜리로씨야공사가 자기 나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보고서에 《…나는 이번 사건이 세계력사에 류례가 없는 범죄적인 사건이라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평화시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군대와 지어는 공관의 비호와 지도밑에 무리를 지어 남의 궁성에 몰려들어가 황후를 죽여 불사르고 이외에도 온갖 비렬한 살인행위와 폭행을 감행하고도 만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한짓을 부정하는 철면피한 행동은 아직까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라고 밝힌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이후 《을사5조약》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고 조선을 병탄한 일본은 40여년간에 걸치는 잔악무도한 식민지통치기간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떠들며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살륙하였는가 하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침략군의 성노예로 만드는 등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오늘날 일본은 저들의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력사외곡과 군국주의부활, 아시아판《나토》창설에 광분하면서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지금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재침책동에 강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경각성을 높이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본사기자 전명진

일제에게 무참히 살해된 명성황후의 장례식

《한미동맹》은 예속동맹, 전쟁동맹

윤석열역적패당이 《한미호상방위조약》체결 70년이 되는 10월 1일을 계기로 《한미동맹》강화를 떠들며 온갖 해괴한 추태를 다 부리였다. 역적패당은 9월에만도 《한미륙군축제》, 《특별사진전》, 《국방토론회》, 《모범용사초청행사》, 《방산안보국제회의》, 《마라손대회》 등 각종 친미광대극들을 련이어 벌리였다. 지어 괴뢰들은 《인천상륙작전기념식》과 같은 대결광대극들에도 《한미동맹 70주년기념》이라는 광고판을 붙이였다.

민족의 피와 넋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천하역적들, 친미사대굴종에 환장이 된 희세의 매국노들의 추악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역적패당이 극구 미화분식하며 내세우는 《한미동맹》의 진상을 밝히려 한다.

지배와 굴종의 치욕스러운 예속동맹

윤석열역적패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에 대해 《혈맹》, 《가치동맹》,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떠들고있다.

그야말로 넝마를 비단이라고 하는것과 다름없는 넉두리가 아닐수 없다.

동맹이란 리해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맺어지는 나라나 단체들의 련합 또는 그러한 국제협정을 말한다. 따라서 동맹의 원칙은 련합하는 나라나 단체들사이의 호상존중과 평등이다.

그러면 《한미동맹》이 괴뢰들과 미국사이의 호상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동맹인가 하는것이다.

아니다. 미국에 있어서 괴뢰들은 한갖 식민지하수인에 불과하며 괴뢰지역은 제마음대로 짓밟을수 있는 식민지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통치배들이 《한미동맹》관계를 수립한 《조약》으로 내세우는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놓고도 이에 대해 잘 알수 있다.

《한미호상방위조약》은 제4조에서 《상호합의에 의하여 미국의 륙군, 해군과 공군을 〈한국〉의 령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이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 조항에 따라 괴뢰지역 그 어디를 막론하고 저들의 륙해공군을 배치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리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고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고 명시한 제6조에 따라 미군의 괴뢰지역영구강점과 조선반도《유사시》 자동개입이 《합법화》되게 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어느한 명예교수는 《〈한국〉을 주권적독립〈국가〉로 믿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위대한 착각이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그 령토가 〈한국〉의 령토가 아니라 북미합중국군대에 예속된 무주권 〈국가〉이다. 〈한국〉과 미국과의 〈국가〉적관계를 규정하는 법적근거인 〈호상방위조약〉 제4조에 의해서 〈한국〉의 령토, 령해, 령공은 무조건, 무제한, 무기한적으로 북미합중국군대에 양도되여있다. 다시말하여 〈한국〉은 자기 〈헌법〉이 무엇을 주장하든 그 령토에 대한 배타적권리를 미국에 장악당하고있는 식민지예속〈국가〉인것이다.》라고 폭로하였다.

괴뢰통치배들은 1954년 11월에 《호상방위조약》의 보충적협정으로서 《합의의사록》을 미국과 체결하여 《한미동맹》의 침략적, 예속적성격을 한층 더 부각시키였다.

미국과 괴뢰들은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은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합법화》하였다. 또한 《합의의사록》을 통해 《유엔군사령부가 〈한국〉방위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의 작전지휘하에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미국은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더욱 확고히 틀어쥐였다.

이 《합의의사록》을 통해 《대전협정》에서 《현 작전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은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한다.》고 했던 조항은 페기되고 미국은 작전상태가 없는 시기에도 괴뢰군에 대한 통수권을 틀어쥐고 무한정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한미호상방위조약》은 철두철미 상전과 주구사이의 지배와 굴종관계를 《법》화한 《조약》이다.

지난 70여년은 《한미동맹》이란 지배와 굴종, 예속의 관계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는것을 더욱 똑똑히 보여준다.

미국이 《한미호상방위조약》조작이후 괴뢰들과 만들어낸 《한미행정협정》, 《주한미군유지비특별분담금협정》을 비롯한 수많은 《협정》들은 미국과 괴뢰들사이의 지배와 굴종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협정》들이다. 그리고 미국은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을 들고 괴뢰군을 웰남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에 저들의 총알받이로 내몰았고 괴뢰지역에서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윤금이살해사건과 두 녀중학생학살사건을 비롯한 치떨리는 만행들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최근에도 미국은 《한미동맹》은 《포괄적안보동맹》, 《전진하는 지역동맹》이라고 하면서 괴뢰들을 저들의 침략적인 인디아태평양전략실현의 돌격대로 내세우려 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한미동맹》이란 상전과 하수인사이의 《주종동맹》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조선반도와 지역에 핵전쟁 참화를 몰아오는 전쟁동맹

《한미동맹》은 조선반도와 지역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는 가장 위험천만한 전쟁동맹이다.

전 조선을 병탄하고 그를 발판으로 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려는것이 미국의 흉심이다.

미국은 저들의 이러한 침략적기도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세기 50년대초 조선전쟁을 도발하였고 이 침략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에도 저들의 수치스러운 패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특히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각종 《조약》과 《협정》들로 괴뢰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바싹 거머쥐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에 내몰았다.

미국에 의해 괴뢰지역은 대조선압살과 세계제패야망실현을 위한 세계최대의 핵전쟁전초기지, 핵화약고로 전변되였고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5》, 《작전계획 8044》, 《작전계획 8022》, 《작전계획 8010》을 비롯한 반공화국핵전쟁각본들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프리덤볼트》, 《팀 스피리트》, 《을지 포커스 렌즈》,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을지 프리덤 쉴드》를 비롯한 각종 핵전쟁연습들이 그칠새없이 벌어졌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최근에도 공화국의 경고와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반공화국핵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쉴드》를 광란적으로 벌리였다.

《힘에 의한 평화》와 《힘에 의한 안보》를 제창하면서 공화국을 《선제타격》하겠다고 허세를 부리는 괴뢰호전광들과 그를 부추기는 미국의 무모한 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항시적인 전쟁위험이 감돌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역적패당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 《안보동맹》이라고 떠들고있다. 이것이야말로 친미에 미쳐도 더럽게 미친 희대의 매국역적,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 없는 만고역적의 추악한 망발이다. 올해초 어느한 외신은 《미국의 반도정책은 〈한국〉의 리익을 위해 작성된것이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다. 문제는 장기간 서울이 워싱톤에 전략적으로 얽매였다는것을 전혀 모르고있거나 또는 모르는척하는것이다.》라고 평하였다.

그렇다. 윤석열역도를 비롯한 친미사대매국노들은 조선반도의 운명이야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세계제패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하고있다.

윤석열역도를 비롯한 친미사대매국노들이 례찬하는 《한미동맹》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는 치욕적인 예속동맹, 굴종동맹이며 우리 민족에게 참혹한 재앙을 몰아오는 전쟁동맹이다.

하기에 괴뢰지역에서는 《한미동맹》철페, 《한미호상방위조약》을 비롯한 온갖 예속적인 《조약》과 《협정》의 페기, 《한》미합동군사연습반대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반미, 반《정부》, 반전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치욕과 재난의 력사를 되풀이할수 없다는것이 괴뢰지역의 민심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제손으로 제무덤을 판다

괴뢰보수층내에서 사회적갈등과 분렬을 야기시키는 윤석열역도의 독선적이며 극우적인 통치방식에 대한 환멸과 배척기운이 고조되고있다.

윤석열역도가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리념대결소동이 중도층리탈을 가속화하고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보수층내에서 터져나오고있는것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전 《국민의 힘》대표 리준석을 비롯한 당내 비윤석열파들은 역도가 련일 《공산전체주의세력》, 《반국가세력》청산을 운운하며 극단적인 리념대결을 고취하고 《반공》을 자대로 모든 사람들을 평가하고있는것은 민심을 전혀 읽지 못하고 주민들과 정치를 분리시키는 바보같은 짓이라고 비난하고있다.

《국민의 힘》관계자들도 역도의 극단적인 《반공》소동에 개혁보수세력과 중도층이 혐오증을 느끼고있으며 지지층리탈을 초래하고있다,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충수》로 되였다, 윤석열이 리념에서 민생으로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해 《국회》의원선거에서의 패배와 권력약화에로 이어질수 있다고 하면서 반발해나서고있다.

역도의 극우보수적인 인물등용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크게 떨어뜨리고있다는 비난도 보수층내에서 고조되고있다.

전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종인을 비롯한 보수중진들은 역도가 집권초기부터 정치개념도 없는 검찰출신들과 측근들을 《정부》의 요직에 들여앉히고 최근에는 리명박집권시기의 구태정치인들까지 집단적으로 끌어들여 독판치기를 일삼고있다, 현 행정부의 장관들은 유명무실한 허수아비로 되여버렸다, 윤석열을 더이상 비호두둔하기 어렵게 되였다고 하면서 내놓고 배척하고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도 윤석열이 인물등용에서 경륜과 능력위주의 원칙을 줴버리고 《우군다지기》에만 몰두하고있다, 《정부》의 장, 차관들은 정책조률과정은 전혀 없이 민심과 동떨어진 설익은 정책발표를 이어가고있으며 공직자들은 향방을 잃고 비위를 맞추는데만 급급하고있다고 여론화하고있다.

그러면서 업무를 태공하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공직사회전반의 사기를 저락시켜 집권층내부의 정책추진력을 크게 떨어뜨리고있다, 역도가 추구해온 로동, 교육, 년금의 《3대개혁》은 완전히 뒤죽박죽되였다고 로골적으로 역도를 비난하고있다.

한편 보수층내에서는 역도가 《대통령》과 여당사이의 관계를 수평관계에서 수직관계로 만들어놓았다고 개탄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있다.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류승민을 비롯한 비윤석열파들은 윤석열이 당정관계를 명령과 지시, 복종의 관계로 만들어놓고 당무에 로골적으로 개입하다 못해 리념전쟁의 돌격대로 내몰고있다고 하면서 여당은 주요정책추진에서 언제 한번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룡산》에 끌려다니기만 하는 사조직으로 전락되고있다고 하고있다.

지어 윤석열이 자기의 처가족속들이 련루된 부정부패의혹을 비롯한 각종 론난거리들에 대한 처리를 전부 여당에 떠맡기고 책임회피를 하는 바람에 《국민의 힘》은 역도의 뒤치닥거리나 하는 둘러리로 변질되고있다고 조소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정객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 힘》이 《대통령》과의 수직관계에서 벗어나 그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는 개혁보수세력으로 되는것이 필요하다, 윤석열이 여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통치력마비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해나서고있다.

이처럼 각계층의 규탄배격의 대상이 된 처지에 제 족속들에게서까지 비난과 배척을 받고있는 윤석열역도의 처지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무지무도한 윤석열역도때문에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이 망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보수패당은 머지않아 윤석열역도와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정치는 란투, 민생은 실종

《사회적불평등과 량극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다.》,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추석민심은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무대책에 대한 분노와 저주뿐이다.》

이것은 극심한 민생고에 지친 괴뢰지역 민심이 지난 추석을 계기로 터친 성토이다.

우연한 소리가 아니다.

괴뢰지역에서는 물가가 나날이 뛰여오르고 자살률, 로인빈곤률, 출산저하률은 사상최악에로 치닫고있다.

하지만 윤석열역적패당과 괴뢰정치권은 도탄에 빠진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검찰파쑈통치와 당리당략을 위한 개싸움질만 일삼고있다.

윤석열역도는 정의와 민주주의, 민생개선과 평화를 주장하는 단체들과 인사들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세력》으로 몰아붙이면서 검찰을 내세워 박해하고 탄압하는 《검찰식통치》에 매달리고있으며 여당인 《국민의 힘》것들은 《국정》파탄을 《여소야대》의 정치구조와 전 《정부》탓으로 몰아가는것도 모자라 윤석열역도의 《반공리념대결》소동에 합세하여 야당들을 비롯한 정치적반대파들과 민주세력들을 모해하고 압박하는 정치적싸움에만 골몰하고있다.

추석전야에 이루어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령장기각문제를 놓고 윤석열역적패당과 공모하여 벌리는 《국민의 힘》것들의 란동과 추태는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국민의 힘》것들은 《민생법안처리》가 《1순위》라고 떠들면서도 부정부패혐의를 받고있는 야당대표의 《대표직사퇴》를 주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고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있다.

이러한 속에 전직《대통령》이라는것들은 지지세력을 규합하여 잔명을 부지해보려 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계층속에서는 《윤석열〈정부〉가 검찰에 의존한 야당죽이기에만 몰두하였다.》,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다.》, 《〈정부〉와 여당에 대한 추석민심은 싸늘하기 그지없다.》, 《멍드는건 민생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술수와 오기만 남았다.》, 《여의도를 폭파해버리자는 국민분노가 들끓고있는것을 정치가들은 듣지 못하는가.》, 《거대량당이 펼치고있는 대결과 정쟁의 정치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있다.》, 《현재 정치에는 〈국민〉과 〈통합〉, 〈상식〉이 없다. 대신 증오와 독선, 독주만 가득하다.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감사원 등이 이끄는 〈검찰국가〉, 〈감찰국가〉란 지적을 받는다. 최근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은 물론 국민을 향해서도 리념전쟁을 선포하며 〈자유 대 공산세력〉이라는 구도를 거칠게 밀어붙인다.》고 윤석열역적패당과 괴뢰정치권을 비난하고 단죄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있다.

이것은 검찰파쑈통치와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 윤석열역적패당과 추악한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싸움질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괴뢰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분노의 표출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군소정당들의 날로 고조되는 정치적움직임

최근 괴뢰내부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사이의 반목과 대결이 심화되고 그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배척기운이 높아가는 속에 군소정당들의 정치적움직임이 날로 고조되고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정책과 대미, 대일굴종행위에 대한 단죄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얼마전에도 군소정당들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벌리는 반미, 반일, 반윤석열대중집회와 시위행진에 참가하여 윤석열이 미국의 패권정책실현의 돌격대가 되여 북을 향해 계속 적대적인 망발을 줴쳐대고있다, 민중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몰고 미국과 일본을 찬양하는 매국노 윤석열이 있는한 결코 평화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면서 역도를 퇴진시키자고 호소하였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강행에 분노한 각계층단체들과 함께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중단 범국민대회》와 초불집회, 공동기자회견 등에도 참가하여 윤석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었다, 윤석열은 일본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뼈속까지 왜놈》이라고 성토하였다.

특히 군소정당들은 주도권쟁탈을 위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사이의 지속되는 란투극에 대해 비난하면서 《거대량당체제》를 넘어설수 있는 대안세력이 등장해야 새로운 세상을 만들수 있다, 시대는 구태정치와 제대로 싸울수 있는 새 정치세력의 등장을 요구하고있다, 위선적인 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끝장내겠다,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 민주주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정치를 지향해나가겠다고 하면서 《로동조합 및 로동관계조정법》, 최저생계비확대와 실업지원금, 농민, 어민들의 각종 피해보상금, 중소기업들의 은행대출자금리자면제, 대학무상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주택제공 등 주민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한 각종 민생공약들도 내놓고있다.

본사기자 한복순

◇개종될수 없는 경제동물◇

세인은 일본을 가지가지의 오명으로 지칭한다.

전범국, 정치난쟁이, 야만국, 외로운 섬나라…

경제동물이라는 말도 그런 오명중의 하나이다.

세인의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섬나라것들의 반인륜적망동 하나만 놓고서도 일본것들을 가리켜 경제동물이라고 비난하는것이 결코 잘못된것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일본은 10여년전 렬도를 뒤흔든 대지진과 해일에 의해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여 생겨나고 축적되여온 600여종의 방사성핵종이 들어있는 130여만t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시키고있다.

국제학계가 주장하고있는것처럼 일본이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출시키면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50여일내에 태평양의 대부분 수역으로, 10년후에는 전 세계의 해역으로 퍼지게 된다고 한다.

조선동해와 태평양전체가 《죽음의 바다》로 화하게 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해양환경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여 인류는 핵참화속에 빠져들게 된다.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책동을 강력히 규탄해나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왜 핵오염수를 한사코 바다에 방류시키고있는가 하는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를 처리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이미전에 일본경제산업성은 증기배출방법과 새로운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법 등 핵오염수를 처리할수 있는 5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본당국은 그러한 처리방법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면서 바다에 방류하는것이야말로 원가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며 그 방법을 써야 일본자체의 오염위험도 최소화할수 있다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전 인류가 핵오염수에 의한 피해를 입더라도 자기의 리속만은 차리겠다는 심보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보건기구총회 제76차회의에서 어느한 나라의 대표는 《물에 독이 없으므로 방류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가당치 않다,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의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면 일본은 왜 자국이 리용할수 있게 남겨두지 않는가, 왜 국내의 호수에 방류하지 않는가, 일본이 바다방류를 선택한것은 저들의 자금지출을 줄이고 세계가 재앙을 입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본당국은 증기배출이나 새로운 저장시설건설과 같은 다른 오염수처리방안은 원가가 많이 들기때문에 원가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인 바다방류를 선택하였다, 자국의 단기적인 리익을 위해 인류공동의 리익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는 기필코 강력한 규탄과 배척을 받게 될것이다고 하면서 섬나라것들을 강력히 단죄규탄하였다.

너무도 응당한 단죄이고 규탄이다.

저들의 리속을 위해서는 인류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는 반인륜적범죄행위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감행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무리들을 그대로 두면 아시아나라들은 물론 전 세계가 끔찍한 재난을 당하게 된다.

세인의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핵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강행하고있는 섬나라것들은 인류를 반대하여 저지른 범죄행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ㄱ-1638ㄷ 주소: 평양 통일신보사 (해외동포 여러분의 서면련락주소: 조선평양 국제우편국사서함 제150호) 전화: 책임주필실 366-0732, 편집국 366-0289 편집위원회